

한국천문연구원 지구관측연구그룹

조정호 그룹장

한창 휴가철이던 8월 중순 무렵, 한국천문연구원 지구관측연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조정호 박사를 찾았다. 진하게 내린 원두커피를 앞에 두고 인터뷰는 휴가 얘기로 시작되었다.

“몇 년째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부서지만 외부 수탁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연구원을 보면, 학회가 있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바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언제, 어떻게 바빠질지 모르는 부서가 있습니다. 수탁 과제라는 게 특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맡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월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3월에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름철 중간쯤에 시작하는 과제가 생기더군요. 덕분에 몇 년째 휴가와는 담쌓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과제 하나를 마무리해서 한숨을 돌렸지만, 아내와 딸아이는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란다.

“지난 주말이 결혼 10주년이어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내와 딸에게 진 빚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큰맘을 먹은 겁

니다. 가족에게 꼭 갈 거라고 장담을 해놨어요. 그렇게라도 대외적으로 다짐을 해놓지 않으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꼭 가야합니다!”

그의 말에는 그 동안 가족에게 잃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한 결연함과 함께 절실함이 묻어 나왔다. 이처럼 그의 삶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원 생활은 1994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석사과정이었는데, 3학기부터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하고 있는 GPS에 발을 들여놓았죠. 만 14년을 GPS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연구실이라고는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현 선임연구부장인 박필호 박사, 우주측지연구부부장인 박종욱 박사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우주측지 분야를 이끌고 있는 3인 방 중 한 명이다.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측지 전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측지 분야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최강국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과학기술백서를 냈더군요. 미래에도 과학 강국으로 남기 위해 어떤 전

략이 필요한 가를 정리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정밀계측입니다. 세계 과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밀계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측지, 즉 지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학문인 천문학을 생각하면, 반대로 지구 밖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우주측지는 좀 동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에서도 우주측지를 다루는 곳은 토목과나 항공우주과 같은 곳이더군요. 천문학과에서는 거의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주측지라는 게 시간과 위치를 다루는 것이고, 이는 곧 천문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마다 거의 빠짐없이 GPS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을 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주측지는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주측지가 단순히 지구의 형상을 측정하고, 지구의 움직임과 변화를 관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일부일 뿐이고, 지진이나 집중호우를 미리 예측하는 일, 전파장애 발생을 사전 예보하는 일 등 그 분야는 정말 넓습니다.”

올 여름, 빛나간 일기예보가 뉴스 보도에 자주 오르내렸는데, 집중호우예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지각변동도 있고, 전파교란 같은 문제도 있지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바로 기상이더군요.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입력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자료가 수시로 제공되지 않으면 정확한 예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GPS를 이용하면 상시 수증기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집중호우 예보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이런 정보를 기상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일본은 이미 기상예보에 적용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기상 분야이다 보니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조정호 박사 뒤로 빈자리 없이 뻑뻑



하게 짜진 일정표가 보인다.

“아, 저거요. 제 취미입니다.”

일정표가 취미? 혹시 워크홀릭(workaholic, 일중독자)인가.

“저건 일정표가 아니고 와인 빈티지차트라는 겁니다. 취미가 와인이죠. 빈티지차트는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캘리포니아 등 와인 산지에서 어느 해에 가장 좋은 와인이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와인을 취미로 시작한 지는 한 6, 7년 됐는데,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좀 먼 얘기지만, 은퇴 이후를 위해서도 좋은 취미라 생각해요. 아마도 그때쯤에는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격식도 많이 차리며 즐겼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와인과 함께 하는 사람과 이야기가 좋다고 한다.

“모든 음식이 그럴 겁니다. 값싼 와인도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면, 그 맛은 그 어떤 비싼 와인보다 맛있습니다. 와인 자체를 즐기기도 분위기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준비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미션의 성공적인 완수를 빌며, 훗날 조정호 박사의 와인바에서 오늘을 추억할 수 있길 바라본다.

